【부처맞춤형과정】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활성화 방안

2019. 8.

국가보훈처

(장지희, 김소영, 서지희)

목 차

<국외훈련 개요> ····· 2
<훈련기관 개요> ····· 3
<훈련결과 요약서> ····· 4

Ⅰ. 서론
1. 훈련목적 ····· 7
2. 훈련필요성 ····· 7
3. 훈련국 선정이유 ····· 7
4. 활동계획 및 준비사항 ····· 8

Ⅱ. 체코의 민주주의
1. 체코의 역사 ····· 10
2. 체코의 민주화 ····· 11

Ⅲ. 체코의 보훈
1. 국가유공자 구분 ····· 12
2. 관계 법률 제정 ····· 12
3. 지원 혜택 ····· 13
4. 보훈단체 ····· 15
5. 국립묘지 및 기념물 관리 ····· 17

Ⅳ. 체코의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
1. 인물중심의 기념사업 ····· 21
2. 장소중심의 기념사업 ····· 27
3. 사건중심의 기념사업 ····· 30
4.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 단체 ····· 32
5.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세계화 요인 ····· 32

Ⅴ. 결론 ····· 37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43

국외훈련 개요

1. 훈련국 : 체코(Czech)

2. 훈련기관명 : 체코 보훈부
(Ministry of Defence of the Czech Republic War Veterans Department)

3. 훈련분야
- 국외단기 부처맞춤형 과정
- 훈련과제 : 민주화운동 기념사업과 관련된 활성화 방안 모색

4. 훈련기간 : 2019. 7. 7.(일) ~ 7. 21(일)

훈련기관 개요

명 칭	체코 보훈부 (Ministry of Defence of the Czech Republic War Veterans Department)	훈련기관의 성 격	체코 보훈부 (정부기관)
소 재 지 (홈 페 이 지)	Ministerstvo obrany České republiky Odbor pro válečné veterány Náměstí Svobody 471 160 01 Praha 6 - Dejvice (http://www.veterani.army.cz/)		
연 혁	○ DWV(Department of War Veterans)는 체코의 보훈부로서, 국가유공자(전쟁유공자 및 민주주의 혁명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 ○ 전쟁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퇴역 군인의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한 취업기회 및 교육 지원, 자유와 민주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해 조직이 설립되었음		
조 직	○ DWV의 구조(부서) - Oddělení péče o válečné veterány(전쟁유공자 지원 부서) - Oddělení vydávání osvědčení - 3. odboj(민주화 관련 부서) - Oddělení péče o vojenské důchodce(제대군인 지원 부서)		
주요교수	○ PhDr. Eduard STEHLÍK, - Department of the War Veterans의 Director ○ PhDr. Pavel Kugler - Department of the War Veterans의 Deputy Director		
교섭창구	Ph. Dr. Pavel KUGLER		
	전화 : tel. 973 225 940	FAX : none	E-mail : kugler@army.cz

훈련결과보고서 요약서

<table>
<tr><td>훈련자</td><td colspan="2">장지희, 김소영, 서지희</td><td>직급</td><td>7급, 8급</td></tr>
<tr><td>소 속</td><td colspan="4">경남동부보훈지청 보훈과, 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 경남동부보훈지청 보상과</td></tr>
<tr><td>훈련국</td><td>체코</td><td>훈련기간</td><td colspan="2">2019. 7. 7.(일) ~
2019. 7. 21.(일)</td></tr>
<tr><td>훈련기관</td><td colspan="2">Ministry of Defence of the Czech Republic War Veterans Department</td><td>훈련구분</td><td>단기</td></tr>
<tr><td>훈련목적</td><td colspan="2">○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보다 폭넓게 국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조명할 수 있는 방안모색 및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담긴 국민정신이 세계 인류의 보편적 가치임을 알릴 수 있는 계기 마련
○ 민주화 운동 선양정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향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직원을 선발하여 글로벌한 시각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 증진 및 조직의 내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td><td>보고서 매수</td><td>43매</td></tr>
<tr><td>내용요약</td><td colspan="4">○ 체코는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나치의 지배와 2차세계대전의 발발, 소련의 공산주의에 의한 자유와 정치적 억압 등 가해 국가는 다르나 탄압과 억압속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과 저항을 통해 현재의 민주주의를 이루어낸 위대한 국민성 등 우리나라와 역사적 의미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 또한 세계인들에게 대표적인 민주혁명으로 자리 잡은 ‘프라하의 봄’, ‘벨벳혁명’ 이 일어난 곳으로 민주주의를 인류 보편적 가치로 발전시는데 중심이 된 곳으로 시사점이 풍부하며 다양한 선진사례를 Research할 수 있는 곳으로 현장 적합성이 뛰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체코(프라하)를 방문하여 민주화 기념사업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td></tr>
</table>

내용요약	○ 또한, 체코 보훈부(DWV, Ministry of Defence of the Czech Republic War Veterans Department)는 전쟁유공자 및 민주주의 혁명 유공자 예우 및 지원, 기념사업 등의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 훈련과제 수행을 위해 다양한 자료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향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통해 세계적으로 확장된 기념사업 추진에도 도움일 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기관을 통해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 체코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은 인물과 사건, 장소중심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고 그 개개별 사건과 인물이 가지는 의미와 세계화 풀어낼 수 있었던 체코인들의 노력과 교육을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있었다. ○ 우리나라는 전체주의에 맞서 끝가지 항거했던 3·1운동과 독재권력에 맞서 싸우며 민주와 정의를 갈구했던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군사 독재 정권에 마침표를 찍는 계기가 된 6월항쟁과 부정한 정부에 민주적 시위로 변혁을 이끌었던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근 현대사는 민주와 자유,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위해 끊임없이 저항하였던 역사라고 볼 수 있다. . ○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를 기리고 영웅들의 숭고한 헌신을 되새기며, 해당 사건이 가지는 역사적,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현재 국민들속에서 녹아내어 위해 10년 주기 행사를 준비하는 시점에서의 체코 방문을 통해 '2020년을 민주정신의 생활 속 정착과 세계화 추진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큰 목표 이행을 위해 리서치 및 현지 관련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방법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본다. ○ 민주화 기념사업의 세계화 추진 방안 모색 민간단체 위주의 다양한 기념사업은 관광지와 연계되며 많은 사람들의 참여속에 그 가치와 정신은 다시금 세계속에 전파되는 연쇄작용을 이끌었다. 우리에게도 민주항쟁의 가치와 정신을 조명하고 희생자를 위로할 수 있는 장소, 인물적 요소들은 많이 존재하므로 이들을 결합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특징화된 사업과 인물의 부각 등이 국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발굴해내야하는 숙제가 될 것이다.

내용요약	○ 범정부적 협업을 통한 기념사업의 효율성 증진 10년주기 행사의 의미와 그간 외면받았고 왜곡 평가되어온 민주의 가치를 재평하고 국민들의 인식속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원년이 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협업을 통한 사전준비위원회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통령직속의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역할 및 사업범위가 모범 선례가 될 것이다. ○ 체계적인 자료의 정비 및 공평한 제공 체코의 사례에서 보여지듯 과거의 기록 보존은 기억·기념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작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민지배, 6·25 전쟁 등 비극적 사건들로 인해 많은 기록들이 소실되거나 누락, 또는 악의적인 방법으로 훼손, 파괴된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많은 기관에서 조사,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집중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이러한 자료의 보존과 발굴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개도 적절하게 이뤄져야한다고 본다. 발굴된 사료난 가치있는 기록들이 보안, 정치적 판단 유보 등등의 사유로 미뤄지고 숨겨지거나 감춰진다면 국민들은 또다른 불신과 다른 이야기를 회자시킬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화 기념사업이 국민들의 공감대 속에 추진해나기 위해서는 이런 작업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균형잡힌 교육 매체 개발 및 홍보 방법의 전환 남아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민주화 운동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그들의 용어와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수단들로 변화시켜야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물론 새로운 세대에만 국한된 작업들은 아닐 것이다. 군부독재의 억압된 교육과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내뱉어지는 언론들의 편협한 정보 제공 등으로 순수하게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기성세대가 많지 않은 것도 우선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일 것이다. 사고의 중용과 방법의 새로움과 복고적 조합을 통해 국민들에게 접근해야 한다. 또한 균형잡힌 교육 매체의 개발과 보급 또한 선행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정책위원회의 온오프라인 정보 수집 및 전문가 중심의 정책방안 제시 등 다양한 방법을 또한 민주화 기념사업의 골격유지부터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이다.

Ⅰ. 서 론

1. 훈련 목적

○ 2020년은 4·19혁명 60주년 및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를 국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조명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에 따라 민주화 운동 선양정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향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직원을 선발하여 글로벌한 시각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 증진 및 조직의 내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2. 훈련 필요성

○ 2018년 2·28민주운동과 3·8민주의거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는 등 4·19혁명으로 이어지는 민주운동의 기념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들의 생활속에서 민주주의 운동의 정착과 세계화 추진의 원년으로 정착화함으로써 국민통합의 초석으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반복과 이념적 갈등, 정치권의 필요도에 따른 현대사의 해석 등으로 자칫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민주화 운동 본연의 가치 존중과 항구성 및 참여 유공자에 대한 국가공동체의 지원과 예우 등 기념사업 추진의 선진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국민들의 가슴속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위 사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우리나라의 정치사와 유사하며 현대사에서 세계인들에게 민주혁명으로 각인되어 있는 체코의 민주주의 혁명의 계승 발전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우리에게 적용 및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찾고자 한다.

3. 훈련국 선정 이유

○ 체코는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나치의 지배와 2차세계대전의 발발, 소련의 공산주의에 의한 자유와 정치적 억압 등 가해 국가는 다르나 탄압과 억압속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과 저항을 통해 현재의

민주주의를 이루어낸 위대한 국민성 등 우리나라와 역사적 의미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세계인들에게 대표적인 민주혁명으로 자리 잡은 '프라하의 봄', '벨벳혁명' 이 일어난 곳으로 민주주의를 인류 보편적 가치로 발전시는데 중심이 된 곳으로 시사점이 풍부하며 다양한 선진사례를 Research할 수 있는 곳으로 현장 적합성이 뛰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체코(프라하)를 훈련국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 또한, 체코 보훈부(DWV, Ministry of Defence of the Czech Republic War Veterans Department)는 전쟁유공자 및 민주주의 혁명 유공자 예우 및 지원, 기념사업 등의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 훈련과제 수행을 위해 다양한 자료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향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통해 세계적으로 확장된 기념사업 추진에도 도움일 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기관을 통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4. 활동 계획 및 준비사항

일자	내용	목적
7/8	- Department of War Veterans 방문 및 기관에 대한 Briefing 청취 - 체코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 이해	훈련국 및 훈련기관 이해
7/9	- 체코 국가유공자 제도 개괄 등 * 전쟁유공자 및 민주주의 혁명 유공자의 자격 등 *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 수혜사항	제도 전반의 이해
7/10	- 체코 민주화 기념 사업 개괄	
7/11	- 체코 민주화 기념관 및 건축물 소개 등 * Vaclav Havel 도서관, Jan Palach기념조형물 등	민주화 관련 기념관 및 건축물 등 소개
7/12	- 민관 협력사항 및 정부 지원사항 개괄 * 관련 기관 및 대학 Briefing 등	관련 기관 소개
7/15	- 관련 기관 방문 * Vaclav Havel 도서관 방문, 기념사업 운영 전반 조사	기념사업 실태 조사

일자	내용	목적
7/16	- 기관 방문 * Institute for the study of Totalitarian Regimes 방문 등	민주화 가치 계승 사례 연구
7/17	- 현장 방문 * Charles 대학교 내 기념 건축물 등	추모 건축물 등 현장 조사
7/18	- 현장 방문 * 체코 전쟁무덤(War Graves) 및 국립묘지 방문	추모 건축물 등 현장 조사
7/19	- 질의응답 등	Research 마무리

○ 체코 국가에 대한 이해 → 체코 보훈부(DWV)를 통한 제도 및 기념사업 추진사항 파악 → 민주화 시설 등 기관 및 시설물 현장 방문, 인터뷰 → 국내 추진 사업과의 접목 가능성 검토 순으로 진행 계획 수립하였다.

○ 체코의 국가 특성에 대한 이해 선행

- 체코에 대한 특성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어떻게 체코의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될 수 있었는 지 파악할 수 있고
- 동 과정을 통해 체코 민주화의 장·단점 및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성 및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 기본적 이해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훈련기관인 DWV(체코 보훈부) 및 보훈제도 전반에 대한 조사

- 국가에 대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훈가족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총괄하는 체코 보훈부에 대한 명확한 이해 선행 후 거시적인 훈련방향 구상 필요

○ 훈련기관, 민주화 시설물 방문 및 인터뷰

- 체코 보훈부를 방문하여 체코의 민주화 전개과정 전반에 대한 인터뷰 진행
-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인 '프라하의 봄'과 1989년 비폭력 민주화 혁명인 '벨벳혁명'에 대한 배경, 전개과정, 관련 인물, 역사적 의의 등에 관한 이해
- 체코 민주 유공자에 대한 지원수혜사항, 민주화 기념행사의 추진 방향, 민주화 운동 시설물 현황 등을 파악한 뒤,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통한 적용 가능성 및 시사점 발굴
- 민주화 관련 협력기관, 민간단체와의 다양한 네트워킹 사례를 통해 정부와 미간이 협력할 수 있는 발전적인 방향 모색

Ⅱ. 체코의 민주주의

1. 체코의 역사

○ 국제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휘청거릴 수 밖에 없었던 대한민국의 역사와 유사한 유럽국가가 체코다. 왼쪽에는 독일, 아래쪽에는 오스트리아, 오른쪽으로는 20세기 중후반 소련엽하의 공산주의 영향으로 지정학적 위치 탓에 몸살을 앓았던 한반도의 역사와 닮아 있다.

○ 체코 역사의 시작은 보헤이마로 까를교와 프라하성처럼 화려한 건축물들이 입증하 듯 강력한 국권을 펼쳤으나 합스부르크의 보헤미아 합병으로 종교적 분열이 시작된다. 보헤미아 지역에서는 종교개혁가 얀 후스가 활동하면서 범국민적으로 신교도의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있는 지역이었으나 합스부르크는 대표적 카톨릭 신봉 왕국으로 갈수록 대립은 심해지며 차별이 심해진 신교를 믿는 보헤미아 귀족들은 합스부르크 왕족으 창밖으로 던져버리는 창외투척사건을 일으킴으로써 30년전쟁의 서막을 알리게 되었다. 이후로도 강대국이었던 프로이센과 합스부르크의 영토분쟁 등으로 프라하는 파괴되고 성비투스 성당도 손실되는 등 피해를 입게 된다.

○ 세계 1차 세계대전 이후 합스부르크 왕가도 몰락하고 민족자결주의 흐림에 따라 독립국가인 체코슬로바키아(1918)가 성립되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경제적 배경이나 민족성은 달랐으나 독립에 대한 열망으로 힘을 합쳤다.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은 동유럽에서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였고 왕성한 경제활동으로 세계 10위의 산업생산량을 거두는 등 저력을 펼쳤으나 나치의 침공으로 위협을 받게 된다.

○ 히틀러는 오스트리아를 강제 병합 한 후 전략상 요충지가 될 수 있는 체코슬로바키아내 독일인 거주지 슈데텐란트를 합병을 요구하게 된다. 이 요구에 자칫 전쟁으로 퍼질 것을 경계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회담을 개최하고 슈데덴란트 지역을 비롯한 체코슬로바키아 내 주요 산업지역 및 군사방어시설 등을 독일에 양보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된느데 이 협정이 뮌헨협정이다.

○ 당사국의 문제에 자신들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강대국들의 합의와 편의에 의해 자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참혹한 현실을 목격한 체코슬로바키아 국민들은 서구국가들의 배신에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에 협조적이었고 2

차세계대전의 승전국으로 나치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한 소련을 환영하였다. 2차세계대전 이후 처음엔 여러 성향의 정당이 연립하여 활동하였으나 1948년 무혈공산혁명 성공으로 공산정권이 수립되었고 41년간 자유와 인권이 억압되고 암흑의 시기로 사회와 경제 모든면에서 발전은 더디게 되며 지식인 중심의 민주·자유화 운동이 시작하게 된다

2. 체코의 민주화('프라하의 봄'과 '벨벳혁명')

○ 1956년 소련 내에서 스탈린 격하운동이 있은 후에도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스탈린주의자 노보트니 정권의 보수정책이 계속되었고 체코슬로바키아 국민들의 민주·자유화의 열망이 점차 고조되어 갔으나, 노보트니 정권은 이를 외면한 채 소련만을 추종하였다.

○ 1960년대 이에 반발한 체코슬로바키아의 지식층이 중심이 되어 민주·자유화의 실현을 위한 조직적인 운동을 펴기 시작하였다. 이 물결에 밀려 마침내, 1968년 1월 노보트니 당 제1서기가 물러나고, 개혁파의 둡체크가 당 제1서기를, 체르니크가 수상을, 온건파 스보보다가 대통령직을 각각 맡았다.

○ 이들 개혁파는 1968년 4월 체코슬로바키아공산당 중앙위 총회에서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회주의' 즉 민주·자유화노선을 제창하는 강령을 채택하였다. 그 내용은 재판의 독립, 견고한 의회제도의 확립, 사전검열제의 폐지, 민주적인 선거법제도의 창설, 언론·출판·집회의 자유보장, 국외여행 및 이주의 자유보장, 경찰정치의 부활저지, 경제계획의 추진,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동등한 권리에서의 연방제로의 이행, 자주독립에 대한 대외정책 추진 등이다. 따라서 사실상 검열제가 폐지되고 많은 정당·정치단체가 부활되었으며, 의회는 활발한 논의와 비판의 광장이 되었다.

○ 이러한 자유화를 위한 정책적 변화가 있자 온 국민은 **'프라하의 봄'(1968)**이라 하여 공산체제로부터의 탈바꿈을 환영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이러한 체코사태가 동유럽 공산국가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이 체제변화를 '마르크스·레닌주의로부터의 이탈'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불법으로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 1968년 8월 소련군의 침공으로 프라하의 봄은 좌절되었으며 체코에서는 정상화를 통한 감시와 통제가 다시 지속됐다. 프라하의 봄 이후 20년에 걸친 후삭 정권은 1989년 동유럽에 확산된 민주화의 물결에 따라 전환에 직면하게 됐다. 체코의 민주화는 공산정권이 반대세력의 정치적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시작됐다. 소련군의 프라하침공을 항의하는 시위를 계기로 반체제운동이 전개되었고 이른바 **벨벳혁명(1989)**을 통해 40년간의 공산당 지배체제가 종식됐다.

Ⅲ. 체코의 보훈(인터뷰에 의한 자료 정리)

1. 국가유공자 구분

a) veterans from the second world war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현재 약 380명)
b) fighters against communism **공산주의에 저항하는 투사** (현재 약 31명)
c) new-age war veterans **신세대 참전 용사** (약 14,000명)

2. 관련 법률 제정

a) Act No. 255/1946 Coll 체코슬로바키아 군대의 구성원 및 민족 해방 투쟁의 다른 참가자들에 관한 법률
b) Act No. 170/2002 Coll 전쟁 참전 용사에 관한 법률
c) Act No. 262/2011 Coll 반공산주의 저항에 참여한 사람들에 관한 법률

○ Act No. 170/2002 Coll. about war veterans § 3
War veteran(전쟁참전용사)의 조건
- 전쟁 참전 용사는 1945년 5월 8일 이후에 활동 중인 군인
- 무력 충돌의 장소 또는 보안 상황이 현저하게 손상된 장소에서 최소한 90일 동안 계속적으로 외국 임무를 수행
- 전쟁 참전 용사는 또한 1939년과 1945년 사이에 해방을 위한 국가적 투쟁의 일원이었던 체코 시민이다.

○ Act No. 262/2011 Coll., on the participants in anti-communist opposition and resistence § 5 위 법에 따라 공산주의에 대하여 저항한

사람은 전쟁유공자의 지위로 인정될 수 있다.

- 체코 시민일 것
- 공산주의 저항 운동을 하였을 것

3. 지원 혜택

○ 전쟁 참전 용사를 위한 혜택(http://www.benefity-veterani.cz)

현대 전쟁 참전 용사들의 혜택 측면에서 세 그룹의 사람들로 구별

War veterans - professional soldiers(직업군인)

War veterans - off duty

War Veterans - Retired (Disabled, Old-age)(퇴직군인)

1) Veteran care home
   - Act No. 170/2002 Coll. 에 의거. 재향 군인회 (Veterans of War) 개정에 따라 국방부는 프라하와 Karlovy Vary(카를로비 바리)에 전쟁 참전 용사 Veterans for Care를 위한 두 개의 시설(요양원)을 설립.
   - 전쟁 참전 용사가 이 시설에 우선적으로 배치되며 예외적으로, 전쟁 참전 용사가 아닌 사람이 수용 능력이 충족되지 않으면 집에 입소할 있음
2) 스파 및 레크리에이션, 식사
   - 스파 트리트먼트 재활 및 레크리에이션 체류 및 회사 급식 제공에 대한 재정 지원
3) 재교육 및 교육의 가능성
4) 지역 사회 센터와 연계한 참전용사 지원
   - 전쟁 참전 용사의 여가 활동
   - 참전 용사를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참전용사의 경험을 공유 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들도록 돕는 것입니다.
5) 그린로드 (Green Road) 프로그램,
   - 전쟁 참전 용사는 개별 전문 병원 (예 : 정형 외과, 수술, 안과, 신경과)으로 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음(http://www.inmemoriam.army.cz/)

참전용사 지원 제도 소개(국방부 참전용사 담당부서)	한국의 보훈대상자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 공유

<민주화 이후 변화를 위한 보훈 입법의 전개 과정>

- Act No. 262/2011 Coll. on the participants in anti-communist opposition and resistance (*in English translation*)
- Rul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Czech Republic on a proposal by a group of Members of Parliament to annul the Act on the Institute for the Study of Totalitarian Regimes and the Security Services Archive
- Act No. 181/2007 Coll. on the Institute for the Study of Totalitarian Regimes and the Security Services Archive, and on amendments to some acts (*in English translation*)
- Act No. 181/2007 Coll. on the Institute for the Study of Totalitarian Regimes and the Security Services Archive, and on amendments to some acts (*in English translation*)
- Act No. 499/2004 Coll. on archival science and record services and on the amendment s to some acts
- Act No. 107/2002 Coll., amending Act No. 140/1996 Sb. on the disclosure of files created in the course of activities on the part of the former State Security Service, and some further acts
- Government Statute No. 165/1997 Coll. on the payment of nonrecurring compensation towards the mitigation of some injustices wrought by the Communist regime
- Rul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Czech Republic on a proposal by a group of 41 Members of Parliament of the Czech Republic to annul Act No. 198/1993 Coll. on the unlawfulness of the Communist regime and resistance against it
- Act No. 198/1993 Coll. on the unlawfulness of the Communist regime and resistance against it
- Act No. 279/1992 Coll. on some additional prerequisites for the execution of some functions occupied by appointed or nominated servicemen of the Police of the Czech Republic and the Prison Service of the Czech Republic (the "small lustration law") (*in English translation*)
- Proceeding of federal organs and organs of the Republic – Rul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Czech and Slovak Federal Republic, Statute Book No. 116/1992, p. 3471
- Rul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Czech and Slovak Federal Republic of the plenary session of November 26, 1992, file no. Pl. ÚS 1/92
- Act No. 451/1991 Coll., establishing additional conditions for the execution of some functions in state bodies and organizations of the Czech and Slovak Federal Republic, Czech Republic and Slovak Republic (the "big lustration law") (*in English translation*)
- Act No. 87/1991 Coll. on extrajudicial rehabilitation
- Constitutional Act No. 497/1990 Coll. on the return of property of the Socialist Union of Youth (Socialistický svaz mládeže - SSM) to the people of the Czech and Slovak Federal Republic
- Constitutional Act No. 496/1990 Coll. on the return of property of the Communist Party of Czechoslovakia (Komunistická strana Československa – KSČ) to the people of the Czech and Slovak Federal Republic
- Government Statute No. 212/1990 Coll. on the revocation of immovable property of the state in the long-time use of the Communist Party of Czechoslovakia
- Act No. 403/1990 Coll. on the mitigation of consequences of some property violations

Act No. 119/1990 Coll. on judicial rehabilitation

4. 보훈단체

○ 제2차 세계 대전 참전 용사는 1939년과 1945년 사이에 나라의 해방을 위한 국가적 투쟁의 일원이었던 체코 공화국 시민이다. 따라서 동부 또는 서부에서 싸운 군인, Czechoslovak 당파, 국내외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많은 인원 수는 아니지만 대부분 연령이 높은 노인층이다. 이 전쟁 참전 용사들은 주로 체코 슬로바키아 국방 장관 협회 (www.csol.cz)와 체코 자유 연맹(Czech Freedom Fighters)의 두 가장 큰 협회에서 조직되어 있다. 이들은 사회에서 존경심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다.

Associations that bring together and help war veterans from second world war : 제 2 차 세계 대전에서 전쟁 참전 용사를 모으고 돕는 협회(대표적 2곳) :

1) Association of Czechoslovak legionaries (www.csol.cz)

이 조직의 본부는 프라하이며 개별 지역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이 조직의 지원대상은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체코슬로바키아의 외국 군대의 병사와 현대 전쟁 참전 용사이다. CSOL은 국가의 자존심 회복, 군대에서의 민주주의와 투쟁의 전통에 기여하고, 유엔 헌장 및 인권과 자유 존중에 따라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조직은 역사 처리와 가르침에서의 사용에 역사적인 연구소, 학교 및 기타 기관과 협력한다. CSOL 조직의 구성원들은 체코 공화국 군과의 관계를 협력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2) Czech Association of Freedom Fighters (CSBS)

조직의 본부는 프라하에 있으며 각 지역마다 지부가 있으며, 조직은 생존자 및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여 자유, 독립 및 민주주의를 위한 전국 참가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의 임무는 민주주의와 인본주의 전통의 정신으로 체코 공화국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의 역사적 기억을 보존하고, 존경, 국가의 자부심과 청소년 역사 및 중간 세대로 인도하는 것임

3) 단체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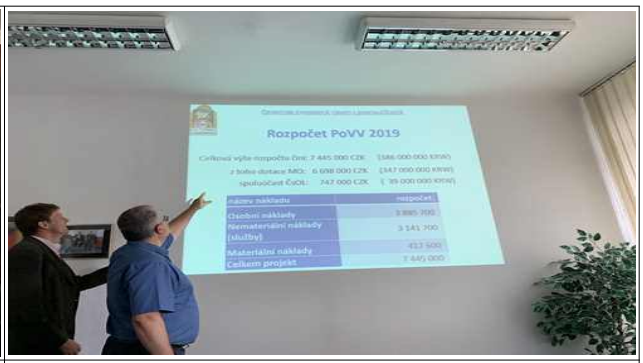
- the association runs a war veterans care program
  (협회는 전쟁 참전 용사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
- 대상자 데이터베이스 유지

* Act No. 255/1946 Coll에 따른 인증서 소지자(베테랑 참전 용사), Act

No. 170/2002 Coll에 따른 전쟁 참전 용사, Act No. 262/2014 Coll에 따른 60세 이상 현대 전쟁 참전 용사 및 전쟁 참전 용사, anticommunist 저항의 전쟁 참전 용사

- 무료 헬프콜 서비스 운영
- 정기 방문 및 연락, 사회 및 보건 프로그램에 대한 상담 지원, 사회 및 사회 건강 문제 해결 및 국방부, 체코 공화국 육군, 지방 자치 정부 및 사회 보장 당국의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 다양한 사회 보장 프로그램 및 사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정보를 MO(Ministerstvo obrany) 홈페이지에 제공.
- 지원대상자의 사회 및 사회 보건 분야의 개인적 수요와 정보를 지역 사회 복지 기관 전달
- 생일 축하 행사, Victory Day(승리의날) - Den vítězství (8.5.)과 Day of War Veterans(유공자의 날) - Den válečných veteránů (11.11.)에 참전용사에게 꽃과 선물.
- 전쟁참전용사 축하 행사 및 국내외 기념행사 시 에스코트 수행
- 유족들이 유공자분들을 병원으로 모셔다 드리기 어려운 경우 전쟁 참전용사를 병원으로 에스코트합니다.(장례지원)
- 지역 청소년 및 체코 공화국 전역의 기념행사에 청소년 단체와 협력하여 전쟁 참전용사가 학교에서 강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사회적으로 소외된 대상자 발굴, 지원
- 전쟁 참전 용사의 상태 및 상황에 대한 정보와 그 평가, 조직 활동의 이행 결과를 연2회 및 연례 평가 보고
- 사망한 참전용사들을 위해 장례지원단을 구성하여 마지막 예우와 명예로운 작별을 위하여 지원

CSBS 단체 관계자의 기관 소개



CSBS 조직 구성 및 역할 등에 대한 PT

5. 국립묘지 및 기념물 관리

○ 전쟁무덤의 케어는 체코 공화국의 법에 의해 관리된다. 이 법은 전쟁 무덤의 유지 보수 및 조정, 즉 그 표시, 위치 기념패, 기념물, 기념관 또는 이와 유사한 상징 (전쟁 무덤 유지 관리 및 주변 환경 포함)을 정의한다.

○ 국립묘지의 유지 이외의 전쟁 무덤의 변경 사항, 특히 이전 또는 폐쇄는 국방부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 이 법은 특히 행정 당국이 특히 전쟁 무덤을 관리하고 기록을 유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것은 체코 국방부의 전쟁 참전 용사 부서의 임무이다.

○ 시기별 국립묘지 관리 체계

1) 제1차 세계 대전 전(Before the World War I)

17 세기에 정규 군대가 도입 된 후에 병사들은 military chaplains service과 군 행정부에 의해 안장되었다. 후에 제1차 세계 대전 후 병사 파견에 관한 규칙을 평화 조약에 구체화했다. 평화 조약은 병력을 감당하기 위해 약속한 주 정부와 군인들의 무덤이 그들의 영토에 묻혀서 존경받고 유지되는 평화 협정에 구체화되었다.

2) 전전 기간(Inter-war period)

체코 슬로바키아 공화국이 설립된 후 투쟁에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 나타났다. 1919년 4월 1일에 MoD의 "Central Inspectorate of War Graves(중앙 검열 총사령관)" 이 설립되었으며, 전쟁 무덤 처리와 기록 보관을 포함하는 권위의 영역이 마련되었다. Inspectorate는 나중에 Central Military Graves Administration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24 년 4 월 1 일에 4,591 지역의 4,970 개의 묘지에 139,557 개의 전쟁 묘지가 등록되었다.

1924 년 중반에 the Ministry of Interior(MoI)는 전쟁 묘지 관리에 들어가고 전쟁 무덤 관리에 대한 책임의 일부가 헌병대에게 위임되었다.(정확한 전쟁 무덤에 대한 책임은 자신들의 모든 공동 묘지에 기록한다는 문구). 1924 년 12 월 말에 끝난 일회성 협력이었다.

1924년 국방부는 전쟁 무덤이라는 용어가 정의 된 전쟁 무덤에 대한 법안을 정교화했으며, 세계 무슬림들이 무덤을 짓고 유지하기 위해 매장 된 지역의 Municipalities(지방자치 당국)에 대한 임무를 규정했다. 주정부는 무덤 유지 보수를 위한 공동체 수당을 부여해야한다. 이 법안은 1934년

12월 31일까지 전쟁 무덤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그 무렵에는 전쟁 무덤이 승인될 수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승인되지 않았지만 전쟁 무덤 문제에 대한 첫 번째 공화국의 입장을 나타낸다.

양 장관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전쟁 무덤을 보호 할 수 있는 법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부분적으로 고인을 매장 할 곳이 부족하여 부분적으로 발생한 전쟁 무덤을 완전히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헌병대 소장의 보고에 따르면, 군대 행정 대표 (헌병대 또는 주둔군 사령부)에게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공동 묘지 및 교회 묘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전쟁 무덤을 청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묘지 관리의 어려움은 the Ministry of Interior(MoI)가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전쟁 무덤 관리에서 협력을 재개했던 1938년에 절정에 달했다. 국방부의 책임은 바뀌지 않았지만 헌병대는 전쟁 무덤 치료 기구가 되었으며, the Ministry of Interior(MoI)는 이 분야에서 책임을 맡기 시작했다.

Bohemia와 Moravia가 수립됨에 따라 이러한 상황이 확인되었고 MoI Military Document Office는 군대 전쟁과 평화시 무덤 보호를 위임 받았다.

3) 제2차 세계 대전 후(After World War II)

전쟁이 끝난 후 전쟁 무덤을 돌보는 책임은 잠깐 동안 국방부의 책임으로 돌아 왔지만 이미 1951년에는 the Ministry of Interior(MoI)로 옮겨졌다. 전쟁 무덤 사업은 the Ministry of Interior(MoI)의 책임으로 옮겨졌으며, 무덤의 조정 및 유지 관리를 허용하는 전쟁 무덤 기록이 포함되었다. 이 시기에는 여전히 "외국 국민"이라는 전쟁 무덤이 사용되었지만 오히려 동맹국을 위한 무덤으로 사용되었다. 외국과 국내 체코 슬로바키아 군대의 군사 요원 무덤 위에 전쟁 무덤으로, 당파 조직과 연합군이 간주되었다.

4) 현재 상황(Current situation)

The Law No. 122/2004 Coll. 군사 무덤과 기념 사이트 및 the Law No. 256/2001 Coll의 개정. 2004 년 2 월 20 일에 채택 된 Oneral Fun Services는 전쟁 묘지 및 기념 묘지 및 국가 행정 기관과 전쟁 무덤 분야에서의 권한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설정한 단체이다.

이 법은 전쟁 무덤을 군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전쟁 포로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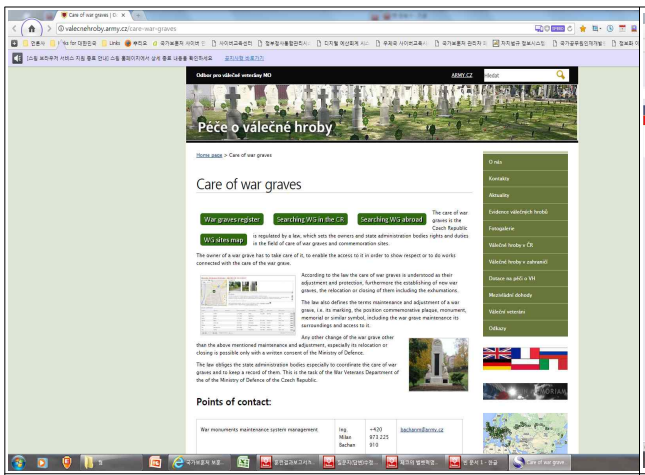
는 저항에 참여하여 사망하신 분이 남아있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쟁 무덤으로 기념물 또는 전쟁의 사건과 피해자를 상기시키는 상징적인 기념 장소이기도 하다. 전쟁 무덤 보호에는 유해발굴을 포함한 전쟁 무덤의 조정, 보호, 설립, 이전 등이 포함된다.

소유자는 전쟁 무덤, 기념물, charnel houses, commemorative plaques and memorials,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경우 소유자, 전쟁 묘지가 있는 부동산 소유자가 관리하며, Municipalities(지방자치 당국)은 주로 전쟁 무덤 소유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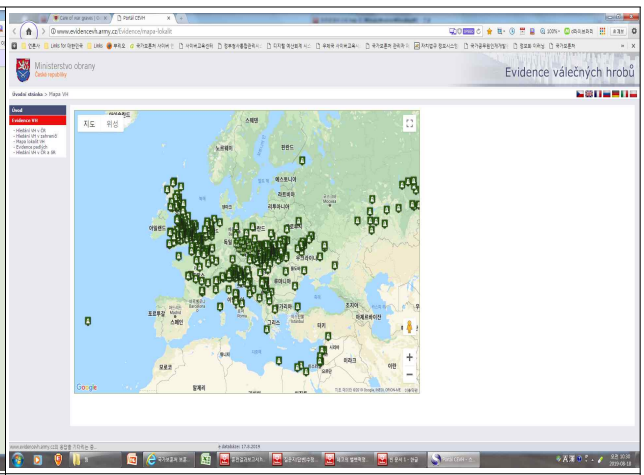
이 법은 행정 구역에 전쟁 무덤 기록을 보관하고 전쟁 무덤 수와 상태를 지역 사무소에 알리는 임무를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Municipalities(지방자치 당국)**에 부과하고 있다. **지역 사무소**는 해당 지역의 진료 묘지 또는 전쟁 묘소를 조정하고 요약 기록을 보관하며 국방성에 번호와 상태를 알리는 업무를 한다.

국방부는 체코와 해외에서 전쟁 무덤 보호를 조정하고 전쟁 기록 보관소에 대한 중앙 기록과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법은 2004 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했으며, 역사상 무덤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http://valecnehroby.army.cz/care-war-graves



국립묘지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사이트



전세계에 분포된 체코 참전용사묘지 현황 탑제

※ 국립묘지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특히 외국에 분포된 산재 묘지의 경우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결해 놓은 것이 특히 인상적임

댜블레의 나치에 항거한 2차대전희생자 무덤	나치에 항거한 투사를 기리는 추모비
올샤니 2차 세계대전 희생 참전용사 묘	2차 세계대전 참전 소련군인의 묘
올샤니 묘지내 추모 공간	묘역 벽면을 활용한 참전자 묘역 안내
묘역 내 무명용사 추모비	참전국 희생 군일을 추모하기 위한 조형물
보훈부 앞에 설치된 2차세계대전 참전용사 기념조형물	참전용사 추모시설을 홍보하기 위한 포스터

Ⅳ. 체코의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

1. 인물 중심의 기념사업

○ **Jana Palacha**(얀 팔라흐, 1948~1969)

1) 인물소개

- 체코 프라하 찰스대에서 역사와 정치경제학을 전공하던 21세의 학생으로 소련의 참략에 대한 저항의 뜻으로 프라하의 바츨라프 광장의 위쪽 국립박물관 앞에서 분신하여 목숨을 끊었다. 얀 팔라흐의 죽음은 계속되는 점령에 대한 큰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약 한 달 후인 1969년 2월 25일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학생 얀자이츠(Jan Zajic)가 자신을 불살랐고 1969년 4월 이흘라바에서 에브젠 플로첵(Evzen Ploc다)이 뒤를 따랐다. 이러한 저항이 여론을 뒤흔들었지만 당시 체코슬로바키아의 정치 상황에 충격을 주는 데까지 이어지지는 못했고 프라하의 경울은 20년동안 지속됐다. 공산주의가 무너진 후 얀 팔라흐가 분신한 위치에 정동상이 세워지고 그를 기리는 뜻에서 루돌피눔과 카를대학 철학부 앞의 광장의 이름을 얀 팔라흐 광장으로 바꾸었다. 조각가 Olbram Zoub다에 의해 만들어진 그의 얼굴은 학부 건물 외벽에 세워졌으며, 체코인들의 민주화에 대한 염원은 국경을 넘어 1970년 로마, 1978년 런던 그리고 1997년 스위스의 베베이에도 얀팔라흐를 기리는 기념물이 세워졌다. 미국 케이블 TV HBO는 얀팔라흐의 이야기를 'Burnning bush'라는 제목으로 영화화 하기도 했다. 체코인들은 청년의 죽음을 일회적인 의식이 아닌 끊임없는 재생산을 통해 기억하고 있다.얀팔라흐가 분신한 다음 해에 체코슬로바키아를 떠나 독일로 간 체코의 천문학자 루보시 코호우텍은 1969년 8월 22일 자신이 발견한 소행성을 1834팔라흐로 명명하기도 했다.

2) 관련 기념물 및 기념행사

- Hrob Jana Palacha (얀 팔라흐의 무덤)

  Olšany Cemeteries의 Jan Palach의 무덤은 시민들이 자주 찾는 저항의 장소가 되었다. 누워있는 사람의 모양을 한 청동 묘석은 Olbram Zoubek에 의해 만들어졌다. 얀 팔라흐의 죽음에 많은 시민들이 무덤을 찾자, 경찰들은 유족인 어머니에게 이 무덤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를 요구했고, 다른 곳으로 이전되었다가 1990년 프라하의 올 샤니 (Olšany)

에 복원되었습니다. 그 후 올샤니 (Orsany) 공동 묘지에서 매년 기념 행사가 열린다.

<얀 팔라흐의 무덤>

누워있는 사람모형의 청동 묘석

얀팔라흐를 기리는 초들과 그의 초상

- 바츨라프 광장의 추모석과 십자가

"거의 아무도 이 기념물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리지도 않고 지나갑니다. 십자가에 눈에 띄지 않는 비문이 있습니다. " -Václav Cílek

이 기념비는 프라하의 바츨라프 광장 (Wenceslas Square) 국립 박물관 앞 분수대에서 수 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1969년 1월 16일 얀 팔라흐는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부어 분신하였다. 이 기념물는 예술가 Barbora Veselá와 건축가 Čestmír Houska와 Jiří Veselý가 만들었습니다. 대다수의 기념물과는 달리, 저자들은 수평을 강조했다. 두 개의 낮은 턱이 바닥에서 튀어 나와 있다. 이 2개의 턱은 십자가와 함께 연결된다. 동시에, 기념물은 횃불처럼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십자가는 불타는 Jan Palach(얀 팔라흐)가 땅에 떨어지는 곳을 향하고 있다. 십자가의 왼쪽 부분에는 Jan Palach와 Jan Zajíc의 이름과 생몰년도가 새겨져 있다.

바츨라프 광장 내 추모석을 찾은 관광객

얀 플라흐와 얀 쟈익을 기리는 초와 꽃바구니

바츨라프 광장의 추모 십자가	국립박물관 앞 광장에 설치된 십자가 조형물

- Pomník Janu Palachovi (얀 팔라흐 기념 조형물)

  이 기념물은 체코의 뿌리를 가진 미국 건축가인 John Hejduk의 작품으로 Jan Palach와 그의 어머니 Libuše Palachová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기념물은 2016년 1월 16일 체코의 앤드류 샤피라 주미 대사, Dominik Duka 추기경, 프라하 시장 및 다른 손님의 참여로 Alšovo nábřeží에서 공개되었다. 모더니스트 기념물은 상징적인 불꽃이 있는 두 개의 금속 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두운 탑은 어머니를, 스테인레스 스틸은 얀 팔라흐를 상징한 조형물이다.

얀 팔라흐 광장 및 기념조형물	얀 팔라흐를 추모하기 위한 메모리얼 기념물

- 대중예술을 통한 얀팔라흐 추모(영화와 드라마)

  민주화의 상징이 된 얀팔라흐는 영화와 TV드라마로 조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얀팔라흐라는 인물에 대해 소개된건 제 15회 전주 국제영화

제에서 얀팔라흐에 대한 사건을 다룬 영화 <타오르는 불씨>가 국내 최초로 상영되었다. <타오르는 불씨>는 미국의 케이블 방송 HBO에서 3부작 미니시리즈로 제작된 드라마이다. 2014년 유럽 15개국에서 방영되었으며 6월에는 미국 극장에서 개봉되기도 했다. 많은 언론과 비평가들은 열광적으로 찬사했고 여러 상도 수상했다. 2018년에는 체코 출신 감독에 의한 <얀 팔라흐>라는 영화를 선보이며 다시금 대중의 관심을 얀 플라흐라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기여한 인물을 기리고 추앙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table>
<tr><td>
</td><td>
</td></tr>
<tr><td><타오르는 불씨> 포스터 2014</td><td><얀 팔라흐> 포스터 2018</td></tr>
</table>

- 얀 팔라흐 분신 50주년 기념 행사

<기념 미사(Tomáš Halík 신부)>

・일시: 1월 15일 18시

・장소: Kostel Nejsvětějšího Salvátora(Křižovnická 1040/2, 110 00 Staré Město)

<바츨라프 광장 전시회>

・일시: 1월 16일(11시)~ 1월 30일

<촛불 행진>

・일시: 1월 16일 18-20시

・https://www.milionchvilek.cz/

<국제 회의 "Jan Palach a další živé pochodně v sovětském bloku“>

・ 일시: 1월 17일 10-16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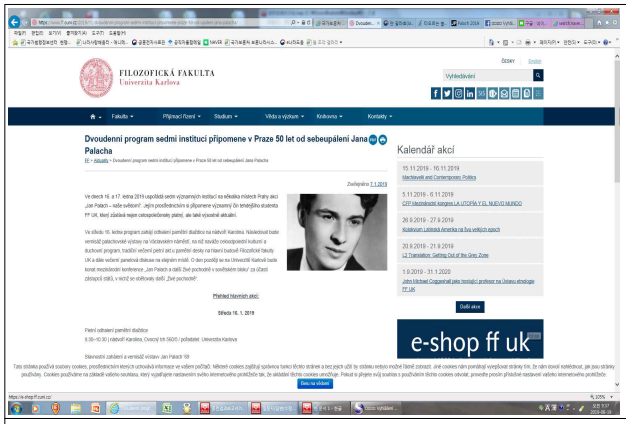
· 주최: 찰스대학교(Vlastenecký sál Karolina, Ovocný trh 560/5)

<기타 기념행사 프로그램>

· https://city-dog.cz/post/nejhlasitejsi-nemy-vykrik-padesat-let-jan-palach/

<얀 팔라흐 기념관 건립 예정>

· 얀 팔라흐가 유년시절을 보낸 마을인 Všetaty에서 8월중 개관 예정



찰스대학교에서 이뤄지는 추모 행사 안내

1월 19일 기념물에서 얀팔라흐를 추모하는 시민 ⓒWikipedia commons

○ 바츨라프 하벨(Václav Havel)

1) 인물소개

- 1936년 10월 5일 프라하에서 출생하였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1948년 체코에 공산정권이 수립된 후에는 부르주아적인 배경 때문에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고, 택시운전기사 등 노동을 하였다. 그후 프라하 예술아카데미를 졸업, 작가의 길로 매진하였으며, 1963년 희곡 《뜰의 축제 Zahradní slavnost》로 국제적인 작가가 되었다. 그러나 공산당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수많은 작품을 발표하고, 검열을 거부하여 국내에서는 20여 년 동안 작품발표가 금지되었다.

1968년 소련군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 후에는 트로트노바 근처의 외딴 농촌에서 은거하며 양조장 직원으로 일하였으며, 수많은 동료 반체제운동가들이 투옥 등으로 활동에 제한을 받는 가운데 반정부운동을 전개하였다. 1977년 8월 '인권헌장77'을 공동기초하여 투옥되었고, 1979년 공화국 전복기도 혐의로 4년 동안 옥고를 치렀다. 그러자 그의 희곡을 읽지 않은 체코슬로바키아인들도 그를 반체제운동의 상징적 인물로 받아들였

다. 1989년 11월 그는 반체제연합 '시민포럼'을 조직, 공산당의 권력독점 폐지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주도하여, 40년 동안 군림해 온 공산 독재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어 12월 29일 체코슬로바키아의회에 의해 비공산당 출신으로 임시대통령에 선출되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분립 이후인 1993년 1월 말 실시된 선거에서 5년 임기의 대통령에 재선되었다. 1995년 체코의 실업률은 3.3%로 유럽 최저이며, 인플레율도 10%로 중앙 유럽국가 중 최저로, 박식한 지식과 균형 잡힌 이념을 가진 하벨은 정치면에서의 경험미숙을 훌륭한 통찰력으로 잘 극복했다. 2011년 12월 18일 타계하였다.

2) 관련 기념관 및 기념행사

<Vaclav Havel Library>

- 바츨라프 하벨 도서관은 바츨라프 하벨(작가, 극작가, 사상가, 인권 옹호자, 체코 슬로바키아 및 체코 대통령 등 현대 체코 역사의 위대한 인물)의 영적, 문학적, 정치적 유산을 수집, 연구, 보급, 증진하고자 조성되었다. 또한 바츨라프 하벨 (Václav Havel)의 유산과 관련된 인물, 사건 및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시대와 현재의 맥락에서 배치된 전시물을 통해 그의 생애와 체코의 민주주의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체코의 공휴일인 11월 17일 자유와 민주의 날(Freedom&Democracy Day) 다양한 기념행사를 찾아볼 수 있다. 프랑스에도 그를 추모하는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다 www.paris.fr/equipements/bibliotheque-vaclav-havel-8693)

하벨도서관 내부 전경

하벨도서관 관계자의 안내

<프라하 바츨라프 하벨 국제공항>

- 체코 항공의 허브공항이며 체코 최대의공항으로 원래 명칭은 프라하 루

지네 국제공하이었으나, 2012년 체코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자 민주화의 상징적인 인물인 하벨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프라하 바츨라프 하벨 국제공항으로 명명되었다.

<바츨라프 하벨 인권상>

- 유럽평의회가 매년 인권 신장에 기여한 인물이나 단체에 수여하느 s상으로 인권 운동에 앞장섰던 바츨라프 하벨을 기리기 위해 제정되었다. 유럽평의회는 2013년부터 하벨 인권상을 시상하고 있으며, 수상자에게는 6만유로의 상금을 수여한다.

2. 장소 중심의 기념사업

○ 민주화 관련 기념 조형물은 http://www.pametnimista.usd.cas.cz 해당 사이트에서 모든 사람들이 확인이 가능하도록 공개 되어 있다. 체코 민주화에 대한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 조형물을 소개하고 있다. 기념 사이트를 문서화하고, 특히 그 원산지와 상징적인 내용에 대한 이유를 매핑(mapping)함으로써, 과거를 재현하고, 업데이트하고, 재현하고, 결국 정치화하고 현재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미지를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 Pamětní deska 17. listopadu 1989

- 프라하의 나로디 트리다 (Narodni trida)에 있는 카넥의 집 (Kanek's House)에 학생 행진에 대한 잔인한 경찰 개입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 공간 및 조형물. 시민과 정치인들이 공산 정권 붕괴로 이어지는 사건을 기념하는 전통적 장소가 되었다. 2016년 11월 16일부터 이 건물의 새 주인인 체코 변호사 협회(Czech Bar Association)는 1989년 11월의 대형 사진을 영구적으로 배치 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을 별도 마련하여 시민 및 관광객 대상 무료 관람이 가능하도로 운영하고 있다.

도심의 중심에 민주화를 기념하기 위한 전시 공간	건물 외벽에 설치된 기념 조형물

○ 바츨라프 광장(Wenceslas Square)

- 블타바 강 왼쪽 지구로 중세 시대 카를 4세에 의해 조성된 신시가지에 속한다. 원래 마(馬) 시장이 섰던 곳이며 광장 가운데 사형대가 세워졌던 역사도 있다. 너비 60m, 길이 750m의 광장은 엄밀히 말하면 광장이라기보다 드넓은 대로에 가깝다. 현재는 중앙 녹지를 경계로 차도와 인도가 나뉘어 있다. 광장 이름은 체코의 최초 왕조인 프르셰미슬 왕가의 왕 바츨라프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는 사후에 성인으로 추대된 체코 기독교의 상징적 인물이다. 광장 동남단에 성 바츨라프의 기마상이 성인 4명의 수호를 받으며 서 있다.

  무엇보다 바츨라프 광장은 체코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벌어진 무대이며 여러 차례 프라하 시민의 집회가 열린 민주화의 상징적 장소이기도 하다. 1918년의 체코슬로바키아 독립 선언이 이 광장에서 선포되었고 1968년에는 '프라하의 봄'이라 일컫는 자유화 운동이 일어나 광장 일대가 모여든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프라하의 봄은 소련의 군사 개입으로 큰 희생을 치렀지만 결국 1989년에 같은 장소에서 몇 십만의 시민들이 광장을 메우며 공산 정권의 몰락을 이끌어 낸 벨벳혁명이 일어나게 된다. 광장에는 1969년 1월 16일, 예술학부 학생 인 얀 팔라흐(Jan Palach)는 1968년 8월 바르샤바 조약 부대에 의해 체코슬로바키아 점령에 항의하여 국립 박물관 앞에서 분신을 했다. 1989 년 이후, 얀 팔라흐 (Jan Palach) 기념비가 국립 박물관 (National Museum) 앞에 세워졌습니다.

- 제2차 세계 대전 중 나치는 체코를 점령하는 동안 학생들을 이용하여 바

츨라프 광장을 대규모 시위에 이용했습니다.

- 1968년 8월 21일 바르샤바 협약 부대에 의해 체코슬로바키아가 점령되는 동안, 소련 탱크의 기관총이 국립 박물관을 체코슬로바키아 라디오의 건물로 오해하여 폭격을 가하기도 하였다.
- 1980년대 바츨라프 광장은 공산 정권에 대항하는 장소로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위는 벨벳혁명을 이끌었고, 1989년 11월에 바츨라프 광장에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시위가 반복적으로 열렸다.

<table>
<tr><td> </td><td> </td></tr>
<tr><td>관광객들로 가득한 바츨라프 광장</td><td>민주화 시위를 기억하고 위한 거리 전시물</td></tr>
<tr><td> </td><td> </td></tr>
<tr><td>1968년 프라하의 봄 당시 바츨라프 광장</td><td>1989년 벨벳혁명 성공 자축하는 시민들</td></tr>
</table>

○ 존 레논의 벽

- ‘프라하의 봄’은 냉전시대의 랜드마트였던 존 레논 벽(John Lennon Wall)에서 시작되었다는 설도 있을 정도로 저항과 자유의 상징이 되고 있다. 이 벽은 프라하의 블타바 강 위에 놓인 카를 브리지(Charles Bridge) 가까운 곳에 있는 옛 성벽으로서, 한때 프라하 청년들의 정치적 초점이 되었던 곳이다. 공산치하에서 프라하 시민들은 ‘레논 벽’에 공산체제를 비판하는 글들을 낙서로 표현하며 서로 소통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레논 벽

은 공산 치하에서 프라하 시민들의 고통을 상징하는 '통곡의 벽' 혹은 공산정권에 대한 저항과 자유의 상징으로 기억되었으나 현재는 평화와 사람의 벽으로 변모하며 많은 이들이 찾고 있는 곳이다.

저항과 자유의 상징으로 세계인들이 찾는 존레논 벽

2019년의 존레논 벽에는 홍콩시위에 대한 의견 표출 인상적

3. 사건 중심의 기념사업

○ Památník obětem komunismu (공산주의의 희생자들에 대한 기념비)

- 페트린 (Petřín)의 경사면에 위치한 이 기념물은 2002년 5월 2 일에 공개되었으며 프라하의 공산 정권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조성됐다. 콘크리트 계단을 걷고 있는 청동 동상으로 이루어져있다. 점차 몸통이 사라지는 일곱 개의 동상은 정권의 박해받는 정치적 반대자들의 비인간화와 파괴를 상징화 하고 있다. 6월 보훈부 주관의 추모 행사가 실시되고 있다.

공산주의 희생자들에 대한 기념 조형물

현장 방문 사진

○ 리디츠 마을 학살과 7인의 영웅 추모비

- 2차 세계대전 당시 체코의 독일 총독 하이드리히를 암살한 7인이 프라하의 메소디우스 대성당당 지하에서 독일군 공수부대에 맞서 끝가지 항거하

다 장렬히 전사한 곳으로 이들을 기리기 위한 시설물이 성항 지하실 내부 및 외벽들에 보존되어 있으며 이 성당은 체코의 성지로 관리되고 있다. 이 사건에 분노한 히틀러는 450여명의 민간인이 살았던 이곳을 철저히 파괴었고 현재 이곳에는 마을 학살 현장에 세워진 희생자 추모비와 기념관들에서 그날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은 1975년 영화로도 만들어져 세계인들의 기억속에 냉혹한 국제 외교에 희생된 체코의 비극과 이로 인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국민들 및 영웅의 헌신, 여전히 냉전체제 아래에서 자유를 억압받고 있는 체코인들에 대한 이야기 나타냈다.
이 7인의 영웅들은 시체는 여전히 찾을 수 없어 댜블리체에 이들을 기리는 추모비가 설립되어 있고 정부주관의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메소다우스 대성당 지하 내부, 탈출구를 찾기 위해 벽을 깬 흔적

리디츠 마을 학상 현장에 세워진 희생자 추모 동상

○ Symbolický hrob Milady Horákové a všech obětí a odpůrců totalitních režimů (Milada Horáková와 모든 희생자와 전체주의 정권의 반대자의 상징적 인 무덤)

- Milada Horáková(공산주의 저항하다 처음으로 참수된 여성 운동가)의 무덤

4.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 추진 단체

○ 전체주의 연구기구 Institute for the Study of Totalitarian Regimes (ÚSTR)

- 전체주의 연구기구 (ÚSTR)는 1939-1945년 나치 점령시기와 1948-1989년 공산주의 통치시기인 체코슬로바키아 현대사의 억압된 시기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수행하는 국가 기관이다.
- 이 기관은 권위주의 정권이 민주화를 맞이할 수 있는 배경과 상황들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국가 보안 기관의 반민주적인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소는 사회 통제가 과거에 구축된 원칙을 더 잘 이해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인권 제한 위협에 더 잘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 ÚSTR은 또한 매우 풍부한 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체코의 다른 교육 기관보다 대중화와 교육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많은 체코 학교와 외국 인 학교와 협력하며 역사 및 다른 과목의 가르침의 근대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Archiv bezpečnostních složek

- ÚSTR의 파트너 조직으로 공산주의 시대의 보안 서비스(국가 안보와 공안뿐만 아니라 민간 및 군사 정보 등)와 나치시대의 일부로 남겨진 자료의 대부분을 관리합니다. 관리하고 있는 모든 보관 자료는 누구나 해당 홈페이지https://www.abscr.cz/en/ 에 방문하여 열람이 가능하다

○ The Czechoslovak Documentation Centre (ČSDS)

- Czechoslovak Documentation Center (ČSDS)는 1948-1989년 공산주의 시대에 체코 슬로바키아와 해외에서 반(反)전체주의 역사에 저항한 사람들이 모인 비영리 단체이다.
- 이 단체의 연구 초점은 자료 수집, 연구 작업 및 연구의 결과 발표입니다. 동시에 역사적인 연구를 일반인들에게 대중화하고 사회에서 역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Platform of European Memory and Consci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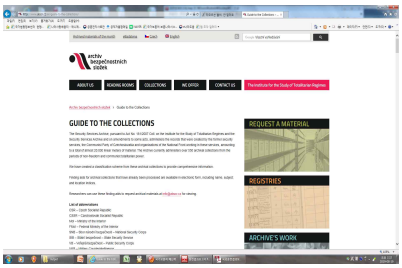
- 비영리 국제 비정부기구로서 체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2011년 10 월 14일에 프라하에서 EU 12개 회원국에 의해 창설되었다. 이 법인은 57곳의 공립, 사립 기관과 EU 회원국 14개국(스웨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독일, 네덜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프랑스), 우크라이나, 몰도바, 아이슬란드, 알바니아, 캐나다 및 미국과 연합하고 있다. 전체주의 정권에 관한 연구, 문서화, 인식 제고 및 교육에 적극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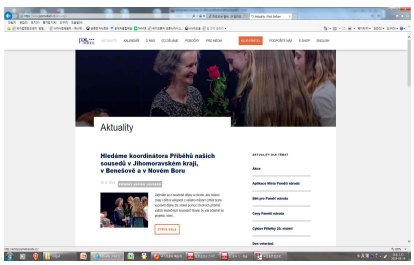
○ Post Bellum

- 포스트 벨툼 (Post Bellum)은 2001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경험과 증인을 찾고 기록하고 있다. 이 조직은 기자 회견과 기념일 행사를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체코 공화국의 기자와 역사가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역사적인 사건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분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야 하며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설립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 Post Bellum의 핵심 프로젝트는 Memory of Nations이다. Memory of Nations은 20세기의 전체주의 시대뿐만 아니라 사진, 신문 및 다양한 역사적 기록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들을 말한다. 이 컬렉션은 수천 개의 증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https://www.postbellum.cz/english/를 통해 일반인 누구나 접할 수 있습니다.

○ The Institute of Contemporary History (USD)

- 현대 역사 연구소 (USD)는 체코 과학 아카데미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단체는 1938년 이후의 체코 및 체코 슬로바키아 역사에 대한 국제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5.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의 세계화 요인

○ 체코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화의 상징과도 같은 국가이다. 나치의 전체주의에 맞섰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주의 체제에서 다양한 민주화의 소리를 내기 시작하였으나 냉전체제에 막혀 자유와 억압은 벨벳혁명이란 무혈혁명으로 체제변화를 가져왔다. 체코의 국민은 오직 당과 정부만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생활을 주도할 수 있다는 믿음을 지난 40년 동안 강요당해왔으므로 공산체제의 붕괴로 민주주의적 의식 전환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 유도는 교육을 통해 이뤄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의 주요 초석이 될 수 있는 민주화 관련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자료 발굴 및 보존, 정당한 공개를 통해 과거의 사건들이 왜곡되거나 과대 포장되지 않고 국민들에게 정당하게 평가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기념사업 등이 유지 관리되고 있고 이것이 동유럽의 작은 국가인 체코가 현대사에 있어 민주화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국가로 각인되고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1) 시민교육을 통한 민주주의 토착화 노력

- 체코의 교육은 공산정권 하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철저한 중앙집권적 국가 교육과정과 교과서 체제에서 매우 세분화된 내용과 지정된 개념의 암기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교육시켜 왔다.
- 시민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도의 성공은 교육과정, 교과서,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자율적 재량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체코의 시민교육 전문가들은 새로운 내용뿐만 아니라 학교와 교실 문화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교수-학습 과정의 분위기 전환이 시민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한다고 보고 있다.
- 현재 체코의 시민교육에 대한 새로운 노력은 체코 사회의 민주주의 현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이나 민주주의 원칙이 누구에게나 공통적이라고 해서 서구의 모델을 그대로 단순히 적용하는 것이 체코의 시민교육에 대한 바람직한 접근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양한 사회 문화적 계층의 필요에 근거한 다문화적 접근으로서의 민주 시민적 가치와 세계평화의 개념을 통합한 시민중심 비전을 강조를 통해 체코만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며, 민주 시민의 정체성을 공고히 할 서구 시민교육의 토착화가 필요하다

- 위와 같은 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민주화 시설 및 인물들에 대한 기념사업 추진과 학문적 연구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2) 민주화 운동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효율적 자료 관리

-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민주화 관련 연구기관은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 등 다양한 곳에서 이뤄지고 있고 끊임없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국가기관인 전체주의 연구기구는 나치 점령시기와 공산주의 통치시기인 체코스롤바기아 현대사의 억압된 시기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통해 민주화를 맞이 할 수 있었던 배경과 상황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국가 보안 기관의 반민주적 활동도 연구 영역에 포함시켰다. 국가 기관의 치부가 될 수 있는 자료와 위정자의 반민족적 활동들에 대한 기록 등에 대한 연구와 과거 소련인 러시아 존재하고 있는 비밀문서의 수집까지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다양한 기관 및 유럽 국가와의 연합 및 교류를 통해 전체주의 사회의 문제점과 폐단을 자국민 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리는 작업도 펼치고 있다. 인권과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관을 통해 세계인들이 공감하고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할 역사를 자각하는 계기 마련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교육을 통한 민주화의 대중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 이것이 민주화 기념사업의 가장 근본적인 밑거름이 되고 있다.
- 또한 수립된 자료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관련 자료가 없거나, 제한된 자료 열람으로 인해 불신과 그로 인한 가짜 뉴스 양산 등 통압을 저해 하는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시스템은 부러운 요소일 수 있다.
- 보다 많은 국민 및 세계인이 알 수 있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관련 사이트도 잘 관리되고 있다.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정보를 소유하고 활용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홍보 방안은 이러한 매체를 잘 유지 관리하는 것일 수 있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찾아 들어 갈 수 있고 한 사이트만으로 국가의 전반적인 기념물 기념사업, 보훈 혜택 등 전반적인 자료를 매핑 기법을 통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민주화의 성지로 체코를 인지하는 요인으로 작용 한 듯 하다.

3) 민간단체 주도 프로그램 운용

- 체코의 기념사업은 크게 10월 28일 독립기념일과 11월 17일의 자유 민주의 날로 크게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다. 바츨라프 광장 기마상 바닥에 1918.10.,28이라고 적혀있는 체코 독립기념일은 400년 넘는 기간동안 합스부르크 통치에서 벗어나 바츨라프 광장에서 독립선언문을 읽은 날로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동유럽권의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 선포의 역사적인 날로 이 날은 주로 국가 주도의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우리나의 광복절과 유사한 날로 체코인들이 가장 우선시 하는 기념일로 간주된다. 11월 17일 Feedom and Democracy Day는 체코슬로바키아 시절 나치의 점령 아래 학생들이 일으킨 자유화 운동이 발단이 되었다. 운동의 시발점은 11월 11일 학생운동가였던 Jan Opletal이 나치에 의해 총살로 생을 마감하며 시작되었고 11월 17일 다수의 학생들이 나치에 대항했으나 다수의 희생자만 내며 끝이 났다. 또하나의 사건은 소련의 체코 점령 시 11월 17일 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소련에 대항하게 되고 이 운동은 이후 체코를 환벽하게 독립하게 하는 벨벳운동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 국제 학생의 날이 1939년 11월 17일 체코에서 일어난 학생운동에 의해 생긴 날이 되었다. 이 자유 민주의 날은 민간단체 주관으로 열리고 있다. 관련 기념 시설 및 대표적 인물에 대한 추모식과 거리 공연, 순회 전시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추모와 기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 의미와 개념을 담은 관광 자원화

- 민주화의 상징이자 대표적 장소가 되어버린 바츨라프 광장, 1989년 11월 17일 프라하 중심가의 바츨라프 광장에 대학생과 시민들은 모여들었다. 나치 점령군에 의해 살해된 '체코 저항의 상징'이기도 한 얀오르레탈(Jan Opletal)의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였고 비폭력적 벨벳혁명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경찰의 시위대 폭력으로 인해 시민들의 정의감은 공산주의 억압정치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응집되었고 이는 열하루만에 체코 공산당 정권을 붕괴시키기에 충분했다. 이처럼 민주주의, 시민항쟁, 학생의거 등 대표적 정치활동의 구심점이 되는 곳으로 전세계 수많이 관광객이 찾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여기엔 자유를 위한 희생의 구심점 얀팔라흐와 얀자익을 추모하는 추모석과 추모기념물인 청동십자가가 있다. 하루에도 수만의 세계인이 찾고 있는 곳으로 이 기념물들을 통해 그들의 고귀한 희생과 자유 민주주의를 향한 의지를 다시금 새길 수 있는 곳으로 전세계적으로 체코의 시민의식과 민주주의 대한 갈망을 표현하는 장소로 정신과 기념과 인물을 추앙하고 기억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자 기념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Ⅴ. 결론

○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6·25전쟁를 겪었음에도 길지 않은 시간 민주화를 이뤄냈으며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룩하였다.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눈부신 번영을 누릴 수 있었을까를 반추해 볼 수 있다. 2020년은 4·19혁명 60주년이며 5·18민주화 운동 4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 민주주의를 위해 부패한 정권에 맞서 싸운 보통사람의 용기를 보여준 4·19혁명의 발단은 1948년 정권을 잡은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이 국민생활과 국가 경제회복이 아닌 장기집권에 대한 야욕으로 탄압과 부정을 일삼아 민심을 잃게 되고 1960년 3월 15일에 있을 정·부통령 선거에 부정선거를 계획하게 된다. 이에 저항하여 가장 먼저 민주화운동에 불씨를 지핀 곳이 대구였다. 1960년 2월 28일, 자유당은 민주당의 선거 유세에 참석을 막고자 학생들을 일요일 강제 등교 시켰고, 대구 지역 고교생들은 거리로 나와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는 2·28민주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대전고등학교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대전 시내 1000여명의 학생들이 독재타도와 학원 자유를 외치며 경찰의 극심한 저지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시위를 이어나간 사건이 3·8민주의거이다. 한편 1960년 3월 15일 마산에서도 학생과 시민들의 규탄시위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3·15의거이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 마산지부의 선거 무효가 선언된 것에 반발한 시민들이 정권에 대응하며 일어났는데 정부는 경찰을 동원하여 무력을 행사하며 무차별 탄압을 자행하였다. 그리고 4월 11일에는 마산 앞바다에서는 시위 참여 후 실종되었던 마산상고의 김주열 학생이 최루탄을 맞은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되었고 이 참혹한 모습에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전국에서 3·15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 즉 4·19혁명이 전개되었다. 자유당과 이승만 정권을 규탄하는 시위가 계속되는 중 4월 18일 국회의사당에서 학우들의 석방을 위한 평화시위 후 귀가하던 고려대 학생들이 정치깡패 습격에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며 평화 시위를 폭력으로 대응한 정권은 국민들의 지지를 잃게 된다. 4월 19일 학생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선언문을 낭독하고 경무대를 향해 나가가기 시작했고 이 대열에는 시민들도 합류하여 전국적으로 10만명이 이르는 국민들이 시위에 참여하게 된다. 시위대가 경무대에 이르자 경찰은 사격을 가했고 무차별 총격과 함께 계엄령이 반포되어 100여명의 사망자

와 수많은 부상자를 낸 4·19혁명의 날이 되었다. 이후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과 시민과 학생들이 합류한 대통령 하야 요구 시위 전개로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자유당 정권은 종말을 맞게되며 독재 정권에 저항하여 거리로 나온 국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되찾은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다.

○ 5·18민주화 운동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광주와 전남 일원에서 신군부의 집권음모를 규탄하고 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하며 전개한 민중항쟁으로 많은 희생의 결과를 낳았지만 민주, 정의, 인권을 위해 싸웠던 현대사의 가슴 아픈 사건으로 사건 직후에는 그 진실이 알려지지 못했다. 그러나 점차 그 진상규명의 필요성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확대되며 1987년 신군부 세력을 몰아낸 '6월 항쟁'의 계기가 되었다. 5·18은 깨어 있는 민중들이 민주사회 발전의 원동력임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나아가 불의의 독재 권력을 거부하는 민주화운동이 합법성과 정당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시켰던 민권 투쟁이되었다.

○ 이처럼 일본 전체주의에 맞서 끝가지 항거했던 3·1운동과 독재권력에 맞서 싸우며 민주와 정의를 갈구했던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군사 독재 정권에 마침표를 찍는 계기가 된 6월항쟁과 부정한 정부에 민주적 시위로 변혁을 이끌었던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근 현대사는 민주와 자유,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위해 끊임없이 저항하였던 역사라고 볼 수 있다. 체코 또한 오랜 외세의 지배와 이념적 대립으로 우리와 비슷한 역사와 아픔을 가지고 있으나 '프라하의 봄'과 '벨벳혁명'으로 대표되는 민주화로의 변혁은 성공과 실패를 떠나 대표적인 시민혁명으로 일컬어지며 세계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킨 중요한 사건으로 각인되고 있다.

○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를 기리고 영웅들의 숭고한 헌신을 되새기며, 해당 사건이 가지는 역사적,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현재 국민들속에서 녹아내어 위해 10년 주기 행사를 준비하는 시점에서의 체코 방문을 통해 '2020년을 민주정신의 생활 속 정착과 세계화 추진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큰 목표 이행을 위해 리서치를 바탕으로 한 방법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본다.

1) 민주화 기념사업의 세계화 추진 방안 모색

'프라하의 봄', '벨벳혁명'은 민주화를 위한 시민의거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는 체코

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하는 이들도 '프라하의 봄'을 인지하고 있고, 바츨라프 광장의 분신을 기억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인에게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 역사적 사건은 후세의 충실한 기념사업에 기인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민간단체 위주의 다양한 기념사업은 관광지와 연계되며 많은 사람들의 참여속에 그 가치와 정신은 다시금 세계속에 전파되는 연쇄작용을 이끌었다. 바츨라프 광장안의 얀 팔라흐와 얀쟈익의 추모비는 규모면에서는 작은 시설물에 불과하나 그들이 숭고한 희생이 이뤄진 장소적 측면과 광장이 가지는 상징적인 부분이 크나큰 시너지를 낸 결과물로 볼 수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민주항쟁의 가치와 정신을 조명하고 희생자를 위로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인물은 많으나 이들을 결합시키기 위한 노력 및 이들의 가치를 세계적인 민주화 운동의 반열에서 논의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져본다. 독재세력에 맞서 민주와 인권, 정의를 위해 노력한 많은 민주인사와 사건, 장소를 개별 부각할 수 있는 사업 추진과 더불어 이들의 결합으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특징화된 사업과 인물의 부각등도 국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검토해보아야 할 숙제인 거 같다.

2) 범정부적 협업을 통한 기념사업의 효율성 증진

보훈의 범위는 독립, 호국, 민주이며, 보훈처의 정책은 이 세가지 범주의 가치를 균형있게 유지하며 추진해나가는 것이다. 정권의 변화에 따라 그 가치의 중심점이 한쪽으로 쏠리는 시기도 있었으나 특히,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올해는 범정부적 공조를 통한 대한민국의 뿌리인 '독립'을 국민들의 가슴속에 안착시킬수 있는 다양한 사업추진과 홍보를 진행했다. 역사에 무관심했던 이들도 전방위적 정보제공과 참여형 컨텐츠의 제시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의 애국을 경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참여는 이 같은 퍼짐에 큰 촉매제가 되었다. 생활속에서 쉽게 접하는 편의점 물품, 생필품, 커피, 과자 등 생활속의 독립의 정신은 안착을 넘어 뿌리를 내렸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계의 지원은 미디어 세대인 청소년들에게까지 강한 울림을 주었다. 영화 뿐만 아니라 뮤지컬, 연극, TV예능에 이르기까지 찾지 않아도 찾아가는 현상을 통해 독립의 영웅을 기리고, 그 유족을 생각하며, 대한민국이란 자부심과 이름없이 희생한 수많은 선조들을 생각하게 하는 중추적 역할을 했다.

이처럼 보훈관련 기념행사를 국가보훈처에서만 추진한다면 전 국민 참여에는 한계가 있다. 10년주기 행사의 의미와 그간 외면받았고 왜곡 평가되어온 민주의 가치

를 재평하고 국민들의 인식속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원년이 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협업을 통한 사전준비위원회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통령직속의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역할 및 사업범위가 모범 선례가 될 것이다. 보훈처의 역할에 대한 의문을 제시할 수도 있으나 기념식이나 예우정책과 같은 실무적 이행이 아닌 독립·호국·민주의 큰 가치를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자치단체 및 관련 민간단체, 기업 등과의 협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께 추진되는 기념사업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민주 가치의 국민적 공감을 바탕으로 협의체 참여기관별 다양한 아이디어 공유 및 유기적 협조체계 유지는 성공적인 기념사업 추진의 가장 큰 그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3) 체계적인 자료의 정비 및 공평한 제공

체코의 사례에서 보여지듯 과거의 기록 보존은 기억·기념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작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민지배, 6·25전쟁 등 비극적 사건들로 인해 많은 기록들이 소실되거나 누락, 또는 악의적인 방법으로 훼손, 파괴된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독립운동가가 서훈을 받지 못거하거나, 사건이 왜곡, 폄하되고 정당한 평가가 유보되는 사례가 흔하게 보여진다. 기록은 영웅만들기나 매국노 지적이 아닌 역사의 정당성을 찾는 아주 소중한 작업인 것이다. 이같은 작업이 선행되어야 역사 바로세우기는 국민들의 공감속에서 차분히 진행될 수 있으며 가짜 뉴스나 가짜 유공자의 발생을 사전에 저지할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많은 기관에서 조사,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자료의 보존과 발굴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개도 적절하게 이뤄져야한다고 본다. 발굴된 사료난 가치있는 기록들이 보안, 정치적 판단 유보 등등의 사유로 미뤄지고 숨겨지거나 감춰진다면 국민들은 또다른 불신과 다른 이야기를 회자시킬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화 기념사업이 국민들의 공감대 속에 추진해나기 위해서는 이런 작업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 민간단체 지속적 지원 및 파트너쉽 유지

민주화 기념사업은 다른 보훈의 가치 중 정치적 사안으로 활방히 진해되지는 못했던게 현실이다. 국민들의 생활속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기관 및 지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민간단체의 활발한 활동이 효율적 추진의 바탕이 될 수 있

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19기념사업회, 3·15의거기념사업회, 5·18기념재단 등 사건별 기념사업회 및 유가족 단체가 존재하고 있고 그 외에도 김주열열사추모사업회, 이한열기념사업회 등 사건의 주역인 된 인물의 활동과 사건의 기리는 단체도 활동하고 있다. 수많은 단체의 범람이 오히려 기념사업 추진의 해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도 있겠으나 다양한 색깔을 가진 단체들의 활동이 오히려 해당 민주화운동을 다각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다양한 참여자의 생각들이 민주가치를 주창했던 의거의 의미와도 맞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단체간의 반복과 적대적 행위로 인해 자칫 민주화운동의 진정한 가치가 훼손된다면 단체들 차원에서의 정화노력과 정부의 중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극단적인 사안이 대두되지 않도록 단체 협의체의 선행활동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몇주년 기념사업만을 위한 일시적 협업이나 지원이 아닌 지속적으로 건전한 민간단체의 역할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 형성과 민간단체내 해당 기념사업 추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정부의 효율적 지원과 관리가 활발한 기념사업 추진이 될 수 있게 할 것이다.

5) 균형잡힌 교육 매체 개발 및 홍보 방법의 전환

정통 직구를 통한 기념사업 추진은 오히려 그들만의 행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추모하고 기념해야 할 사업들이 추진자의 일반통행과 수용자의 무관심속에 묻힌다면 그 사건들로 희생된 유공자와 남아있는 유가족들에게 또하나의 고통과 슬픔이 될 수 있다. 방법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계속되서 거론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처럼 쉽지 않은 방법론이기도 하다. 청소년, 청년들의 생각은 빠르게 변화고 있다.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세대는 기성세대들이 다수다. 새로운 방법론은 그래서 필요하다. 사용하는 용어나 사용매체도 조금씩 틀리고 유행에도 발빠르게 대체하기엔 관심도나 제도적인 문제, 조직내의 위치 등으로 인해 쉽지는 않다. 탈색위에 새로운 색을 입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간의 남아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민주화 운동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그들의 용어와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수단들로 변화시켜야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물론 새로운 세대에만 국한된 작업들은 아닐 것이다. 군부독재의 억압된 교육과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내뱉어지는 언론들의 편협한 정보 제공 등으로 순수하게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기성세대가 많지 않은 것도 우선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일 것이다. 사고의 중용과 방법의 새로움과 복고적 조합을 통해 국민들에게 접근해야 한다.

또한 균형잡힌 민주적 교육 매체의 개발을 통한 전국민 보급도 함께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교육현장에서는 관련 자료의 부재나 교수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한 부처만의 문제는 아니다. 다음세대의 교육 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에 스며들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정부부처의 협업 및 민간의 지원도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정책위원회의 온오프라인 정보 수집 및 전문가 중심의 정책방안 제시 등 방법은 다양할 것이다. 생활 밀착형 민주화의 원년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

체코의 공산정권을 기념하기 위한 장소를 방문했었다. 민주화에 배치되는 장소에서 아래와 같은 말이 가슴을 쳤다 '우리는 1948 년부터 1989년까지의 자유가 아닌 기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반영할 것인가? 그리고 이 기간을 어떻게 기념 할 것인가?' 이 문장이 기념사업의 실무를 추진해야하는 우리에게 던지는 계속된 질문이 될 것이다.

<수집 자료 및 참고 문헌>

□ 수집자료

1. Association of Czechoslovak legionaries 의 발간물
   - SMER(1/2019, SPECIAL)
   - VALECNY Verteran(1/2019, 2/2019)
2. CZECHOSLOVAK LEGIONS 1914-1945
3. 체코 관련 법률
   On the participants anti-communist opposition and resistance

□ 참고자료

1. 한국교육신문(2005.4.1) 안미옥(미국 콜롬비아대 교원연구소 박사)
2. 국가보훈처 공식 블로그
3. 체코의 벨벳혁명과 민주화(기억과 전망 여름호-통권 30호)-안승국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